

인권 주일  
대림 제2주일

#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관리국

기도서 214면  
제1독서: 마 16: 1-9  
제2독서: 필 1: 4-6, 8-11  
복음: 루 가 11: 1-6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강론



## 회개와 구원

### 이 상 섭 신부

구약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하느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의 행위라는 것을 예언자와 현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왔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 즉 개심(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 회개는 과거를 뒤우치고 올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귀의시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세례자 요한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원의 신비가 역사적으로 현실화되기에 회개와 세례는 더욱더 증대하고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여러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을 더 명백히 강조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와 세례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마르 1,4; 마태 3,2; 루가 3,3; 사도 13,24). 또한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으므로 하느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느님께로 되돌아 올 것을 강조했다.

지금은 대림시기이다. 대림시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모습으로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시기이다. 바로 이 시기는 이 순간에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삶의 태도는 미래의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회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각자는 언제 탁월지 모르는 세말의 그 날을 눈 앞에 두고 새로운 변화와 탄생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나 자신 안에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하겠다. 이번 대림시기에는 특히 끊어버리기 어려운 나쁜 습관을 고치기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요한세자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낮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루가 3,4-6) (문율동 보좌신부)



## 제 값 좀 찾자.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우리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인권주일」을 정하고, 이 시대의 징표들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재천명하고 나선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만큼은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어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할 상황이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인간의 모습이 구겨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가정에서의 가장들의 독주와 여자들의 방종도 문제지만, 자녀들의 철부지 짓(탈선)도 문제다. 원가도 못되는 값으로 진짜 순 참기름을 만들어내는 장사속도 문제다. 직장 상사들의 외고집과 거드름도 문제다. 국민을 위한다는 행정이 우선순위에 없이 높은 분 비위맞추기에 급급해서 번두리 서민들은 항상 푸대접 속에서 사는 일도 문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세제를 조정할 답시고, 시내버스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해 뛰는 서민들 보다는 자가용타고 골프치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다. 정권안보를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국민들을 관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것도 문제다. 인권을 말하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교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무슨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도 생각 해보아야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처음으로 제정한 인권주일을 맞아,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다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꺾박한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

## 숲 정 이 산책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주일에 즈음한

— 주교단 담화문 (1) —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sup>1)</sup>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에 상응하는 삶을 유린당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며, 동시에 창조주의 뜻이 거역되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회복자로서 끊임없이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해야”<sup>2)</sup> 할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재삼 천명하고자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는 대림 제 2 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고, 그 첫 인권주일을 맞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자각과 각성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기본원칙

1.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되었으며, 하느님과 더불어 완전한 존엄과 행복을 차지할 위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잉태된 태아까지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신성 불가침의 천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2.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민주사회의 지배적 이념이며, 하느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이룩하는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를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창의력을 가지고 그 주체로서 참여하는 민주주의로써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3. 정치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법과 제도를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명과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옳은 기준을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도 신성한 근본이요,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규범입니다.<sup>3)</sup>

4. 화해와 평화는 단상의 웅변이기보다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어야 하며, 잠정적 타협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지는 형제애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화해는 정의와 진실에 바탕을 둔 화해여야 하고, 공동성과 일치하는 화해여야 하며, 인간성과의 화해이어야 합니다.

5. 이 세상의 재화는 그 본질상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사회적 성격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법칙, 즉

현세의 재화는 정의와 공공목적을 위해서 있다는 법칙에서 유래합니다.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합니다.<sup>4)</sup> 모든 재화의 소유자는 잠정적 관리인이며, 따라서 공동선을 손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6.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존엄에 상응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적·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조직할 권리와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조직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활동할 권리는 자연적인 것입니다.<sup>5)</sup>

7. 사람이 스스로 더욱 가치있게 되고 자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주변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은 자기 발전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발전의 권리는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의 갈망에 뿌리박고 있는 기본적 인권의 생동적인 발로인 것입니다.<sup>6)</sup>

8.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sup>7)</sup> 양심에 따라 생각할 권리와 알고 알릴 권리는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자유스럽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권리는 이미 개인이나 권력의 특권이 아니라 공익 자체의 요청인 것입니다.

9.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 고문만큼 잔혹하고 야만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써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인 것입니다.<sup>8)</sup>

10. 이러한 원칙들을 확인, 실천함에 있어 우리 교회는 사랑과 화해의 계명과 정신으로써 그것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느님과의 일치는 물론 전 인류와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도 구라는 것을<sup>9)</sup>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1982년 12월 5일 인권주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주(註)

- 1) 창세기 1장 27절.
- 2) 루카복음 4장 18-19절.
- 3)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 16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5. 12. 7.
- 4)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 69항.
- 5) 「어머니와 교사」 22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1961. 5. 15.
- 6) 「세계 정의에 관하여」 3항, 제 2차 세계주교 시노드 메시지, 1971. 11. 30.
- 7) 사도행전 4장 20절.
- 8)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 27항.
- 9)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1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4. 11. 21.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매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전화 ⑥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도(덕배)

□ 각종 신발 도산매

**새 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 유치원용, 교재·교구

**중앙 교육사**

전화 (72) 1 8 9 1 번

이 승 호(다마스)

위치 : 전동 터미널 앞





□ 교구 제단체 지도신부 임명

(교구공문 82-38호, 1982. 11. 26.)

단 체 명	지 도 신 부
인성회	총신부
정의평화위원회	대리신부
교육위원회	교육목회
공소사목위원회	교사총동
매스컬위원회	홍대리
성지개발위원회	총대리
신학생후원회(신학생 장학회)	총대리
쌍타인판시아	총대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사교목회
교리교사 연합회	사교목회
중·고학생 연합회	교교목회
대학생 연합회	교교목회
레지오 마리에	전전동
근로자의 집 지도신부(신설)	창김전
노동 청년회	김영대
농민회	김대
프란치스코 재속 3회	노승동
빈첸시오 아빠올로회	김병장
교구 수녀 연합회	유교장
중·고학생 지도자 연합회(신설)	김법정
교수회(신설)	진석석
약사회	소규현
의사회	진석석
군중후원회	진석석
토사리오회	진석석
꾸르실로	진석석
행복한 가정 운동	진석석
기초 공동체 목사회(M. B. W.)	진석석
M·E(신설)	진석석
성령 새신 운동(신설)	진석석
휘팔라레(신설)	진석석
교도소(신설) ① 전주 교도소	진석석
② 군산 교도소	진석석
③ 전주 소년원	진석석
교구내 각 단위대학 지도신부	진석석
전주지구 ① 전북대학교	진석석
② 전주 교육대학	진석석
③ 전북의대 및 간호전문대학	진석석
④ 전주대학, 전주공업전문대학 및	진석석
기전여자실업전문대	진석석
⑤ 우석대학	진석석
이리지구 원광대학 및 원광보건전문대학	진석석
군산지구 ① 군산 실업전문대학	진석석
② 서해공업전문대학 및	진석석
군산수산전문대학	진석석
③ 군산대학 및 개정간호전문대학	진석석

요심이 (487)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밤 고  
눈을 편 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썬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3032  
윤(베드로) 종선

**결 (축) 혼**

유임례씨 장남 박정기(도마)  
전남신씨 4녀 전현숙

일시 : 82. 12. 12. 11:00  
장소 : 전동성당

□ 신장 개업

**신영양복점**

전주시 고사동 1가  
(전북신문 사거리-백제  
화랑 중간) ☎ ②2873

김기완(도마)  
※ 교우님 특별 우대

**정화조(수세식)**

일반 변소 청소업

(주)전북기업사

전화 ② 2740  
8773

배남식(도마)  
육태수(도마)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  
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  
으로 기증함

**보석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전화 ③ 6603  
한철재(비오)

□ 마춤·대어

**웨딩드레스 전문**

신부화장, 꽃(부케), 드  
레스부속 일절, 신부 약  
의 촬영

유순례(가타리나)  
전화 72-2347  
전주 서서학동 교대부속  
국교 정문앞





1. 대림 제 2 주일은 인권주일입니다
2. 5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 5일 오후 2시, 순창 본당
3. 수녀연합회 연수회 : 6일<화>, 가톨릭 센터
4. 200주년 전주교구 위원회 회의 : 7일<수> 오후 3시, 교구청 회의실
5. 사목지침 실행방안 연구 모임 : 11일<토>
6. 축! 해성학교 영세식 : 11일<토> 오후 2시, 학교 강당
7. 축!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 : 8일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보좌 박기인  
보좌 신부 김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3

- ◎ 성경읽기 : 이사야서 25장~50장
1. 자모회 : 10일 어머니미사 후
  2.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 6일 9시부터 원서 배부
  3. 중앙신협 성당 파견근무 : 매주일 미사시간마다
  4. 예비자 일교식 : 12일 공식미사 중
  5. 우리아 릴레회 : 12일 오후 2시 강당
  6. 신축현금 수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경옥·고은경·백나미·윤한상·윤영훈·김요셉·이미경·이완재·정명남·하태윤·심용규·김영신·배창수(각 1만2천원), 김세영(30만원), 전한수·최양금(각 20만원), 강미숙(2만원), 이종선(2만2천원) 최복순(50만원), 이강남·최태연·정정숙·성후남·박찬숙·김선미·이근배·최양순·김진배·전경옥·조윤선·김경순(각 10만원), 박안나(5천원), 김연옥·조정자(각 5만원) 서울 연희동 이경남(1만원)
- 신축현금 총누계 : 109,066,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24,857원 교무금 : 1,528,500원  
특별헌금 : 김아나스라시아 5천원, 서진영 2만원

6. 학생회 릴레회 : 오늘 학생미사(오전 9시) 후
  7.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기도-강기연  
차주전례 : 해설-김인석  
독서-①김성원 ②임중을, 기도-박상기
- 지난주 봉헌금 : 492,810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민구

1. 사도회·반장회 : 공식미사 후(83년 예산안 토의)
  2. 우리아 : 다음주 오후 2시
  5. 판공성사 : 마을리공소 12일(일요일 오후)  
본당판공-1·2·3·4반(15일), 5·6·7·8반(16일), 9·10·11·13반(17일), 기타반(18일)  
※ 성사시간 : 오후 3시~저녁 8시까지
  4. 자모회 모임 : 7일 오전 10시 회의실
  5. 우리아 연중친목회 : 14일 오후 7시 본당 강당에서
  6. 꽃대 불려 : 백영순(5천원) 감사합니다
  7. 차주전례 : 독서-①강기호 ②김낙균
- 지난주 봉헌금 : 218,585원 교무금 : 151,000원

(송정동)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④9567 사도 회장 김수렵

1. 평신도 강론(오늘) : 이철수 형제
  2. 견진교리 : 6일~9일(저녁 7시30분~9시)  
활교 : 10일 저녁 7시30분, 11일 오후 4시~6시  
견진성사 : 12일 10시 공식미사 중
  3. 판공성사 : 시간-오후 2시~6시  
13일-진북1동·태평동, 14일-금암동·어은골
  4.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5. 성가 연습 : 10일 오후 2시
  6. 금주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이종상·김장영, 기도-이규철·이은자  
차주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강삼·강원도, 기도-이강노
- 지난주 봉헌금 : 508,760원

(노송동)

신부 ①0969번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번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성탄 판공일정 : 변경은 당일에 하세요  
공소판공 : 16일 오전 10시-신원리와 왕정리, 16일 오후 4시-다리리, 17일 오전 10시-황운리와 신교리, 본당 판공 : 18일 오후 2시부터-조·중·고생 및 직장인들, 20일-남노송동·우아동, 21일-중노1가, 22일-중노2가, 23일-인후동(본당 성사주는 시간-오전 9시~12시, 오후 2시-5시, 밤 7~9시까지)
  2. 교리시험 : 시험지는 본당신부님과 면담시에 제출
  3. 자모회 릴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차주 전례  
새벽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서요한 ②문정숙  
공식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이일규 ②서정숙  
저녁미사 : 해설-이경관, 독서-①이종승 ②박민숙  
기도당당-김종표·김정순, 제물봉헌-노인석 부부
- 지난주 교무금 : 본당 586,000원, 아파트 122,000원  
봉헌금 : 본당 336,706원, 아파트 46,17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업  
사부 ⑦3222 보좌 신부 박준두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유아세례 : 9시 미사 후
  2. 자모회·장우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마리아 우리아 : 다음주 오후 2시
  4. 추계판공 : 18일-초·중·고·직장인, 20일-전동·서교동·동완산동, 21일-동교동·중앙동·서완산동·기타동, 22일-풍납동·남노송동·경원동·다가동
  5. 성령기도회 : 매주 월요일 7시 강당, 누구나 참석
  6. 주일 미사시간 변경 : 아침-6시, 저녁-7시
  7. 다음주 전례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주영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유기동 ②박도식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정동희 ②경양수
- 지난주 봉헌금 : 577,980원 교무금 : 879,5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동희  
보좌 신부 임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공식미사 후
  2. 전도에 큰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3. 진북회 회원 전원 L.M. 가입 활동키로
  4. 성사 못보신 분 : 평일 저녁미사 후 성사 드립니다
  4. 성탄 성가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어머니들
  5. 성탄절 사랑을 베풀시다 : 부녀회에서 좀도리쌀 모금
  6. 예비자 봉헌 : 1세대 1인 인도봉헌서 봉헌합니다
  7. 가정에 활자 모시고 계시는 분 : 5일~12일 신청
  8. 봉헌금 완납합니다 : 봉투 확인하시고 미수 없도록...
- 지난주 봉헌금 : 458,591원

(파티마)

신부 ⑩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⑪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사모회 릴레회 : 오늘 밤 미사 후, 사도회 상임위원·교문단·감사·분과위원장·매리차장 1명 필히
  2. 두현리 판공 : 9일
  3. 본당 판공 : 12일·19일
  4. 우리아 회합 : 오후 2시, pr간부 전원 참석
  5. 냉담자들 가을판공에 인도 : 레지오 단원들 협조바람
  6. 교무금 완납 : 연말까지
- 지난주 봉헌금 : 178,730원 교무금 : 219,000원  
감사헌금(최 레지나) : 10,000원

(복자)

전화 ⑩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설호

1. 성모 무염시태 대축일 : 8일 교중미사
2. 성우회 : 25일 성탄 자시미사 후로 연기
3. 복자부녀회 : 6일 어머니미사 후
4. 성탄 판공성사 일정 : 15일-다가동·중앙동·교사동  
16일-태평동·완산동·화산동, 17일-진북동·기타  
18일-학생·직장인, 오전 10~12시, 오후 3~5시
5.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람 : 의무를 다합니다